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801

JCCT 2023-3-96

중학교 해외 체험 사례 조사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Overseas Experience Case Studies in Middle School

박영주*, 이미연**

Young Joo Park*, Mee Yeon Lee**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검색 엔진을 통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비교·분석한 후 SPSS 23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독립표본 t 검정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의 작은 학교 중심으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라남북도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전액 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진로 체험, 문화 체험, 관광, 자매 학교 방문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역할을 하며, 향후 공교육에서의 해외 체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해외 체험 학습, 해외 진로 체험, 문화 체험, 중학생 진로 체험, 작은 학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ses of overseas experience programs centered around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overseas experience programs. To achieve this, data were systematically collected through search engines based on keywords, followed by comparativ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s,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s are operated nationwide, with a focus on smaller schools in various regions, and are particularly active in the Jeolla provinces. Diverse public funding, such as from the board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vested, categorizing operational costs into full financial coverage among others. The programs primarily took place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close to South Korea. Second, the purposes of these middle school overseas experience programs largely encompass career exploration, cultural experiences, tourism, and sister school visits. We hope that school-based overseas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re actively operat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enhancing global competence and global citizenship, as well as exploring career paths.

Key words : Overseas Experiential Learning, International Career Exploration, Cultural Experience, Middle School Career Exploration, Small Schools

*정회원,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조교수(제1저자)

**정회원,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강사(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8월 13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본 연구는 '중학교 국외 진로 체험학습 효율적 운영 방안'(2023) 보고서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Received: August 13, 2023 / Revised: August 29,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yunny0619@naver.com

Dept. of Music Education, Kyungnam Univ, Korea

1. 서론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한국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5천 2백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1, 2]. 또한 2070년에는 약 3천 8백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1, 3-5]. 국가 총 인구 감소 외에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게 되면서 강원,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3].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등 8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89곳으로 확정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10년간 투입하여 청년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인구 감소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8].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교가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9]. 전국적으로 60명 이하 혹은 30명 이하의 전교생을 가진 소규모 학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10년 안에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 예로 경남의 A 중학교의 경우, 1980년에는 총 27개 학급, 190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었지만, 2023년에는 총 5개 학급, 74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학교가 되었다 [10-12]. 한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그 지역 사회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즉, 지역의 학령 인구의 감소가 지방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며, 이는 곧 지역의 소멸을 야기하는 것이다 [13-15].

영국, 일본, 핀란드 등의 선진국들은 소규모 학교의 통합과 폐합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가 존치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16]. 또한 여전히 학령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가지는 긍정적 교육 효과와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학교간의 통합과 학교의 폐합을 지양하고 있거나, 소규모 학교의 운영 내실

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4].

교육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 질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통해 교사의 수를 결정하는 기존의 국가 단위 지표를 수정하여, 교사 '기초 정원' 개념을 도입하였다 [17]. '기초 정원' 개념은 학생 수 대비 교사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하여 소규모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교사가 배치되어 교육의 질적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지역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별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신설하였다. 나아가 각 시·도별 특징을 반영하여 작은 학교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작은 학교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8].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며, 작은 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1].

최근에는 지역 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색 프로그램으로 전교생 대상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19]. 과거에도 해외 체험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해외 연수, 해외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으로 인한 세계 시민성 향상,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교육의 방향성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 더욱이 과거에는 국가적으로 지양하거나 사립 학교 등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의 학교 중심으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및 시·도 지자체, 교육청 등의 공적 자금을 통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나아가 과거에는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외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최근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및 문화 다양성 태도 함양, 폭넓은 진로 설계가 가능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유연한 대처와 소통 역량 강화 등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 이러한 이유로 해외 체험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기초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해외 체험 사례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인 홍보성 내용으로 국내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진로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중학교 대상으로 해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다면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중학생 해외 체험 활동은 어떠한 특징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둘째, 지역별 운영되었던 중학생 해외 체험 활동 사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국내 해외 진로 체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구글(Google)과 네이버(Naver)의 검색 엔진에서 ‘해외’ 혹은 ‘국외,’ ‘중학생,’ ‘체험,’ 의 키워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로 수집된 자료 중 구체적인 운영 계획서나 교육청 통합 자료, 또는 각종 학교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2차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3차로 첫째, 중학교 대상으로 운영된 30명 이상의 단체, 둘째, 지자체 혹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운영 주체자 이거나 공적인 지원금이 투입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후 각 주제별로 코딩하여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집된 사례 중 초등학교 학생 혹은 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된 중학교 대상 사례는 전체 대상 수가 30명 이상이면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이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중학교의 전교생 또는 한 개 학년의 전체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학교도 연구에 부합되는 사례이므로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최종 추출된 사례

수는 27개로 나타났다.

제시된 자료를 대상, 기간, 장소의 범주로 내용을 분류하였고, 수집된 연구 자료를 운영 주체, 체험 일시 및 일정, 국가, 비용, 목적, 내용, 기타 사항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재분류하였다. 이후 추출된 내용을 양적 분석을 위해 키워드 중심으로 코딩하였고, SPSS 23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변인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중학생 해외 체험 학습의 운영 특징

중학생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17개 시·도는 표 1과 같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81.5%의 프로그램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 중 전라북도에서 29.7%의 높은 비율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1. 지역별 중학생 해외 체험 실시 현황

Table 1. Status of overseas experiences case for middle school students by region

지역	프로그램 운영 빈도	퍼센트
서울시	1	3.7
인천시	1	3.7
경기도	3	11.1
강원도	1	3.7
충청북도	3	11.1
충청남도	3	11.1
전라북도	8	29.7
전라남도	3	11.1
경상남도	3	11.1
제주도	1	3.7
전체	27	100

표 2와 같이 해외 체험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N=21, 77.7%), 한국에서 거리가 먼 미국, 캐나다, 유럽을 대상으로도 운영되었다(N=5, 22.3%). 또한 지자체와 해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사전에 체결하고, 학생들이 그 중 한 나라를 선택하여(N=1, 3.7%) 해외 체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 해외 체험 대상 국가

Table 2. Destination for overseas experience

국가	빈도	퍼센트
미국	2	7.4
싱가포르	7	25.9
일본	6	22.2
베트남	2	7.4
중국	4	14.8
태국	1	3.7
유럽	1	3.7
일본 베트남	1	3.7
캐나다	2	7.4
직접선정	1	3.7
전체	27	100

표 3과 같이 운영 기금의 59.3%는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혹은 학교 운영 기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였다.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참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일괄적으로 정액을 부담하였다. 또한 비행기 표만 부담하거나 보험료, 혹은 개인 비자 등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경우 전액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표 3. 운영 기금 지원 및 수익자 비용 현황

Table 3. Status of operational fund support and beneficiary costs

구분	빈도	퍼센트
전액부담	16	59.3
1/2이상 지원	1	3.7
2/3이상 지원	7	25.9
전액 수익자부담	3	11.1
전체	27	100

2. 지역과 해외 체험 학습 특성 간 연관성 분석

1) 학생 규모에 따른 지역 간 특징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전라북도과 전라남도를 하나의 범주로 하고(전라남북도) 나머지 지역을 그 외 범주로 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북도 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규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133, p<.01$). 전라남북도가 그 외 지역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평균 학생의 규모가 더 많았다<표 4>.

표 4. 지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규모 특징

Table 4. Characteristics in the scale of student participation in programs by region

지역	N	평균 학생수	SD	t	p
전라남북도	11	72.64	57.36	3.133	.004**
그 외	16	24.06	20.47		
전체	27	.	.		

** $p<.01$

전라남북도 지역과 그 외 지역과의 해외 체험 대상에 대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0.369, p<.05$). 전라남북도 지역은 중학생이 72.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5>.

표 5. 지역에 따른 대상 간 특징(N,(%))

Table 5. Characteristics among targets by region(N,(%))

구분	대상						전체	χ^2	p
	초	중	고	중고	초중고	장애 학생			
전라남북도	0 (0.0)	8 (72.7)	1 (9.1)	0 (0.0)	0 (0.0)	2 (18.2)	11 (100.0)	10.369	.046*
그 외	1 (6.3)	3 (18.8)	5 (31.3)	4 (25.0)	1 (6.3)	2 (12.5)	16 (100.0)		
전체	1 (3.7)	11 (40.7)	6 (22.2)	4 (14.8)	3 (3.7)	4 (14.8)	27 (100.0)		

* $p<.05$

2) 운영비용에 따른 지역 간 특징

전라남북도 지역과 그 외 지역과의 프로그램 운영비용 간 특징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7.917, p<.05$). 전라남북도 지역은 전액 부담이 90.9%인 반면에 그 외 지역은 전액 부담, 1/2 혹은 2/3 이상 지원, 전액 수익자 부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6. 지역에 따른 운영비용 간 특징(N,(%))

Table 6. Characteristics of operational costs by region(N,(%))

구분	전액 부담	1/2 이상 지원	2/3 이상 지원	전액 수익자 부담	전체	χ^2	p
전라남북도	10 (90.9)	0 (0.0)	1 (9.1)	0 (0.0)	11 (100.0)	7.917	0.048*
그 외	6 (37.5)	1 (6.3)	6 (37.5)	3 (18.8)	16 (100.0)		
전체	16 (59.3)	1 (3.7)	7 (25.9)	3 (11.1)	27 (100.0)		

* $p<.05$

3) 자매결연 유무의 특징

해외 체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특징적인 사항으로 자매결연의 진행 여부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매결연을 사전에 실시하여 해외 체험 사례 중에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자매결연에 대한 특징을 전라남북도 지역과 그 외 지역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5.304, p<.05$). 전라남북도 지역은 해외 학교와의 자매결연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외 지역은 자매결연을 진행하거나 하지 않았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7>.

표 7. 지역에 따른 자매결연 유무의 특징
 Table 7. Characteristics of sister city relationships based on region

구분	자매결연		전체	χ^2	p
	없음	있음			
전라남북도	11 (100.0)	0 (0.0)	11 (100.0)	5.304	0.021*
그 외	10 (62.5)	6 (37.5)	16 (100.0)		
전체	21 (77.8)	6 (22.2)	27 (100.0)		

* $p<.05$

3. 해외 체험 학습 목적과 내용간의 특징

1) 진로 탐색 및 설계와 관광과의 특징

진로 탐색 및 설계와 관광 간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6.075, p<.05$). 해외 체험 프로그램에서 진로 탐색 및 설계의 내용이 없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 비율이 91.7%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 탐색 및 설계의 내용이 있는 경우, 관광 유무에 대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8>.

표 8. 진로 탐색 및 설계와 관광과의 특징
 Table 8. Characteristics of career exploration and planning from tourism

내용	관광		전체	χ^2	p
	없음	있음			
진로 탐색 및 설계	없음	11 (91.7)	12 (100.0)	6.075	.014*
	있음	8 (53.3)	7 (46.7)		
전체	9 (33.3)	18 (66.7)	27 (100.0)		

* $p<.05$

2) 문화 탐방과 관광 간의 특징

문화 탐방과 관광 간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6.750, p<.01$). 문화 탐방 내용이 없

는 경우, 관광을 진행하지 않은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표 9>.

표 9. 문화 탐방과 관광과의 특징
 Table 9.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ploration and tourism

내용	관광		전체	χ^2	p
	없음	있음			
문화 탐방	없음	0 (0.0)	3 (100.0)	6.750	.009**
	있음	18 (75.0)	24 (100.0)		
전체	9 (33.3)	18 (66.7)	27 (100.0)		

** $p<.01$

3) 자매결연과 관광 및 대학교 탐방과의 특징

자매결연과 관광과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857, p<.05$). 프로그램 내 자매결연 내용이 있는 경우 관광을 진행한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자매결연과 관광과의 연관성
 Table 10. Characteristics of sister city relationships and tourism

내용	관광		전체	χ^2	p
	없음	있음			
자매결연	없음	12 (57.1)	21 (100.0)	3.857	0.049*
	있음	6 (100.0)	6 (100.0)		
전체	9 (33.3)	18 (66.7)	27 (100.0)		

* $p<.05$

자매결연과 학교 탐방 간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857, p<.05$). 프로그램 내 자매결연 내용이 있는 경우, 대학교 탐방을 진행한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자매결연과 대학교 탐방과의 특징
 Table 11. Characteristics of sister city relationships and college exploration

내용	대학교탐방		전체	χ^2	p
	없음	있음			
자매결연	없음	12 (57.1)	21 (100.0)	3.857	.049*
	있음	6 (100.0)	6 (100.0)		
전체	9 (33.3)	18 (66.7)	27 (100.0)		

* $p<.05$

IV. 논의

본 연구를 통한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비용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장소, 학생의 비용 부담 등에서 차이가 났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교육청, 학교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주관에 따라 방문 국가, 학생들의 비용 부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공교육에서 보편적 지원을 통한 해외 체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운영비 등에 따른 정부의 차별적 보조가 필요하겠다. 더욱이 '진로 체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주관 형태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해외 체험 프로그램 목적에 따른 내용의 특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도출되었지만,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의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진로 체험, 문화 체험 등 특정한 목적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 결과보고회를 열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경험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설계하고 준비하여 진행된다면, 지역 학교 특성 사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통한 학교 프로그램 만족으로 진출 학생수의 감소는 물론 전입 학생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학급 수 및 교원 수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중학생 해외 체험 사례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해외 체험 사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검색 엔진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 및 분류하였다. 이후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및 코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중학생 해외 체험 실시 현황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라남북도 가장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중학교 학생들로만 진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합하여 운영했던 프로그램도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는 체험 국가로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체험 사례도 나타났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교육청, 지자체, 학교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액 지원이 많았지만, 수익자 일부, 반액 지원 등 다양한 운영비용 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둘째, 국내에서 운영되는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로 체험, 문화 체험, 관광, 자매학교 방문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단독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사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해외 체험 국가 방문 시 자매 학교 방문을 통해 진로 체험, 문화 체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진로 체험의 경우 관광보다는 산업체 및 기업체 방문, 대학교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조사는 인터넷에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만 찾아 연구하였으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전체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 시민성을 향상시키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공교육에서의 해외 체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Status and Projec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Reflecting the 2021 Future Population Estimates,” September 2022.
- [2] Statistics Korea, “What is The Population Size of Our Country, and Where Does It Rank Globally,” June 2023.
- [3] Y. J. Hong, “Rapidly Aging Korea...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by 2025,” *Financial News*, September 2022.
- [4] S. H. Kim, “Government–Local Government–Community Links Driving Community Health. Sports Issues and Diagnosis,” *Korea Institute of Sports Policy Science*. April 2023.
- [5] M. J. Seo, “‘Low Birthrate Shock’ in Korea: Set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Country in Population Decline’ by 2045,” *Hankyung*, February 2021.
- [6]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government Website, “89 ‘Population Reduction Areas’ Have Been Designated, and Provincial Areas Will Be Revived in Earnest!,” October 2021.
- [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f ‘KRW 1 Trillion Per Year’, Intensive Investment for 10 Years in Demographic Areas,” *Korea Institute of Sports Policy Science*, February 2022.
- [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government,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9] S. J. Oh,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Education Must Change in This Way by 2045,” *Money Today*, October 2019.
- [10] I. Hong, “Proposing a Bill to Revitalize Small-Scale Schools,” *Kyunghang News*, May 2023.
- [11] Ministry of Education, “Small Schools! Big Education!! Come See the Truly Great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in 2021,” *Ministry of Education*, pp. 1–19, January 2022.
- [12] School Info,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b01_s0.do?GS_CD=S160002838.
- [13] G. J. Lee, Y. K. Kim, B. J. Kim, and J. M. Lee, “Mid- to Long-term Teacher Supply and Demand Directions and Tasks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9.
- [14] O. Autti, and E. K. Hyry-Beihammer, “School Closures in Rural Finish Communities,” *The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Vol. 29, No. 1, pp. 01–17, 2014.
- [15] N. Egelun, and H. Laustsen, “School Closure: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the Local Society?,”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0, No. 4, pp. 429–439, 2006.
- [16] K. J. Lee, E. K. Kim, B. J. Kim, and J. M. Lee, “Long-term Strategies and Challenges for Teacher Supply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Policy Research 2019–Entrustment–11, *Ministry of Education*, 2019.
- [17] Y. S. Go, “Preventing Small Schools in Densely Populated Areas from Disappearing...Introduction of ‘Basic Capacity’ Introduction,” *Yonhapnews*, January 2023.
- [18] S. Kwon, “Special Feature 3–Direction and Challenges for Supporting Small-Scale Schools in the Era of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Happy Education*, Vol. 474, pp. 28–31, January 2022.
- [19] J. S. Yang, “Special Feature 3–Come to a Small School. Find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in Harmony with the Community,” *Happy Education*, Vol. 474, pp. 24–27, January 2022.
- [20] K. Park, D. Kang, S. Kim, S. Park, W. Choo, and J. Jeong, “A Study on Overseas Experiential Learning Model Based on Career Education Utilizing Action Learning,” *Journal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Education*, Vol. 7, No. 1, pp. 81–101, 2014. <http://dx.doi.org/10.14580/jice.2014.12.1.81>.
- [21] Youth International Exchange,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6.jsp>.